

예수님의 비유(210811)

■ 제 6 강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비유(마 13:44-46)

1. 전후 문맥

1.1. 예수님의 비유

- 1.1.1. 외인들로 하여금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()(마 13:13)
- 1.1.2. 동시에 제자들에게 “창세부터 감추인 것들”을 ()(마 13:35)
- 1.1.3. 이때 사용된 “감추인”은 “밭에 감추인 보화”와 같은 표현(κρύπτω)(마 13:44)

1.2. 씨앗과 누룩의 비유

- 1.2.1.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
- 1.2.2. 말씀 자체의 ()으로 스스로 자라는 나라
- 1.2.3.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열려 있음

2. 밭에 감추인 보화(마 13:44)

2.1. 땅에 보화를 묻음 → 전쟁과 피난 → 생존하지 못함

2.2. () 문제는 비유의 핵심이 아님

- 2.2.1. 보화는 이전 밭 주인의 것이 아님(감추인[완료시제])
- 2.2.2. 밭을 매입한 후에 나온 보화는 땅의 새 주인에게 귀속
- 2.2.3. 이것은 당시의 문화에서 자연스럽게 이해됨

2.3. 농부의 () 발견과 큰 기쁨

2.4. 농부의 선택

- 2.4.1.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매입
- 2.4.2. 당연하고도 지혜로운 선택

3.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(마 13:45-46)

3.1. 두 가지 장사

- 3.1.1. 도매상(ἑμπορος): 본문의 진주 장사
- 3.1.2. 소매상(κάπηλος)

3.2. 진주를 찾는 사람들

- 3.2.1. 이윤을 남길 진주를 구하여 다니는 장사
- 3.2.2. 비교가 되는 진주는 값진 진주(천국)의 유사 및 대용품

3.3. 우연한 발견

- 3.3.1. 진주 장사가 구하는 진주는 자신의 경험과 기대치를 벗어나지 못함
- 3.3.3. 극히 값진 진주는 그의 기대와 예상을 벗어난 진주
- 3.3.4. 그러므로 () 발견이라고 해도 무방

3.4. 진주 장사의 선택

- 3.4.1.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구입
- 3.4.2. 진주의 가치는 이 상인의 전재산과 등가가 아님
- 3.4.3. 이전 소유주는 그 참된 가치를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

4. 결론

- 4.1. 두 비유 모두의 요점은 하나님 나라의 () 발견
 - 4.1.1. 결단이나 희생을 요점으로 보는 학자들
 - 4.1.2. 희생은 그 대상의 가치에 비해 포기하는 내 소유의 가치가 더 클 때!
 - 4.1.3. 결단도 망설임을 넘어서게 하는 의지적 선택
- 4.2. () 선택
 - 4.2.1. 비유 속 인물들에게는 고민의 흔적이 없음
 - 4.2.2. 오히려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산을 처분
 - 4.2.3. 자연스럽고, 마땅한 결정
- 4.3. 성경 속 대조적 두 인물
 - 4.3.1. 부자 청년(마 19:21-22)
 - 4.3.2. 베드로와 제자들(막 19:27)
- 4.4. 우연한 발견, 하나님의 ()
 - 4.4.1.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님
 - 4.4.2. 이 우연한 발견이야말로 가장 큰 복(마 13:16)
 - 4.4.3. 이 복을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(마 13:35)
 - 4.4.4. 큰 기쁨을 누리는 삶